

# 알기쉬운 건축사진 촬영법

## Easy Camera Technique for Architecture



임정의 / 사진가  
by Lim, Chung-eui

약력

- 청암건축사진연구소 대표
-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자연광과 인공광에 따른 촬영방법

#### 인테리어사진과 엑스테리어사진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은 빛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을 각양각색으로 보여준다.

건축사진 촬영에서 건축물들은 모두가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상태로 빛에 따라 그 형태들은 다르게 표현하게 된다.

건축의 외형들은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빛에 의한 표현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자연의 변화하는 빛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자연의 빛이란 일반적으로 해가 뜨는 아침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태양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건축은 입체적이며 공간적인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모든 건축물들은 정면과 좌우측면 그리고 뒷면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들은 빛에 따라 그 모습들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됨으로 빛과 공간의 조화를 만들어야 한다.

대지의 위치에 따라 건축물들에 비추어 오는 좋은 빛의 역할

은 건축물들을 더욱 효과 있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름철과 같은 강렬한 태양광선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대비도 필요하다.

한국의 전통건축과 같은 외부 형태들은 처마로 인해 강한 명암의 차이로 디테일들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저녁 무렵의 일몰시에 촬영하는 것이 더욱 건축물들의 좋은 효과를 만들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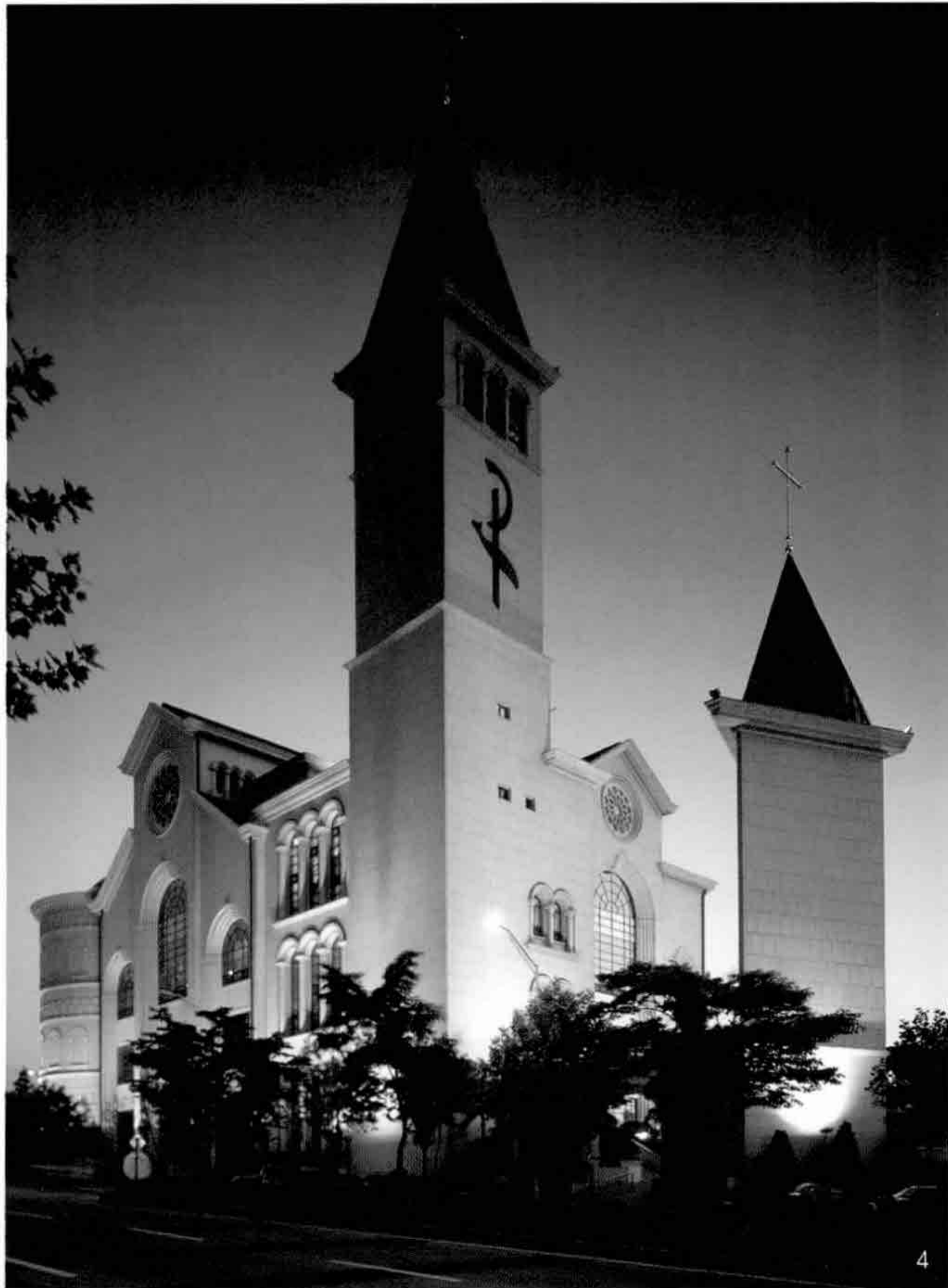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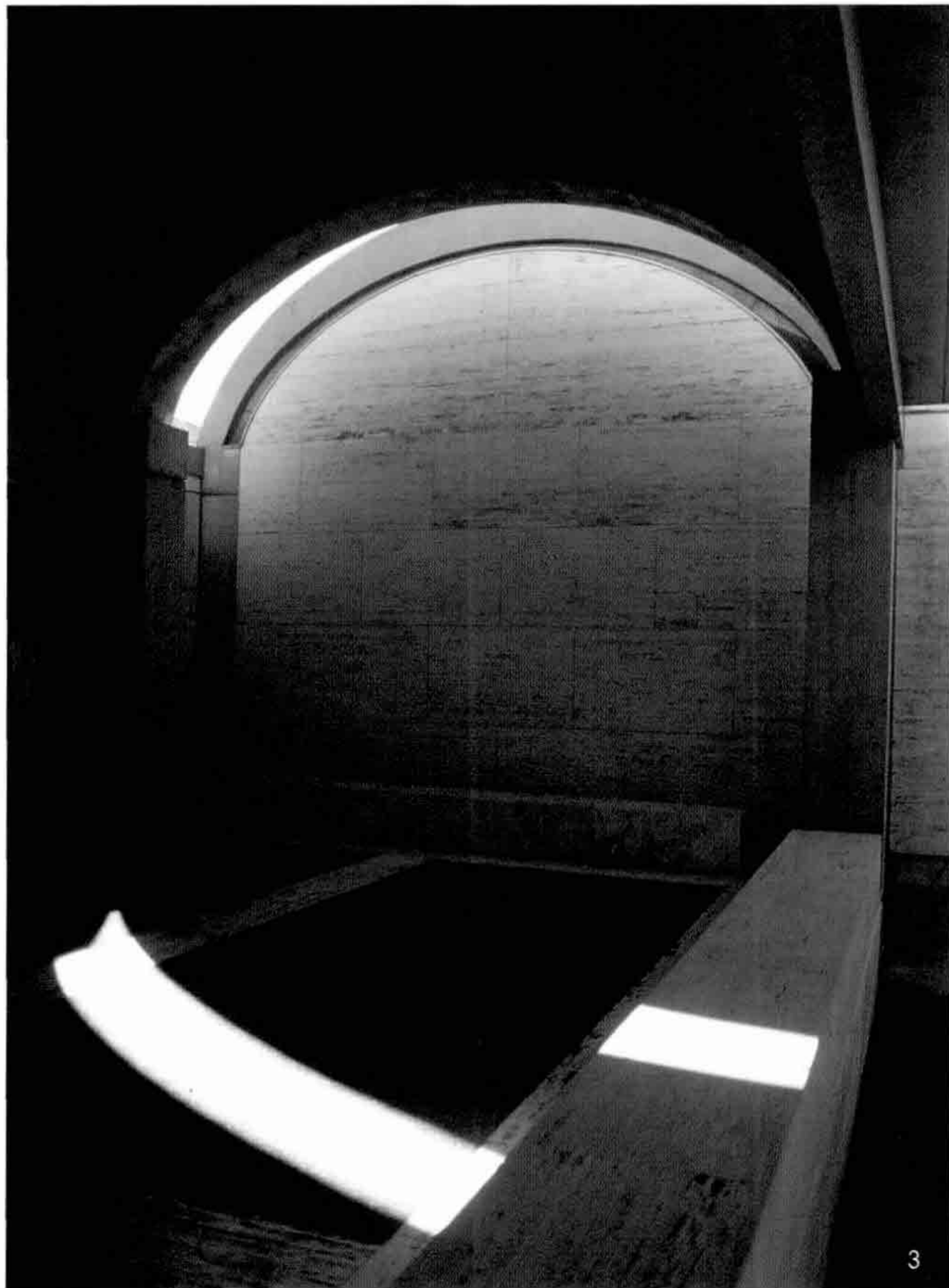
모든 형태들이 부드럽고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됨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되는 모습들은 누구나 선호하는 사진이다.

단지 건축물의 입체적이고 형태로서의 모습들은 좋은 광선으로도 충분히 표현한다지만 이러한 일몰시의 사진들은 자연과 공간의 조화를 만들어 주게 됨으로 더욱 좋은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빛의 밸런스를 이해하는 것이다.

빛의 변화는 항상 같은 조건이 아니다.

사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 하루의 빛의 변화 등을 이해하면서





1. 김수근의 경동교회 외부 디테일 2. 김종업의 진주 문화회관 3. 루이스 칸의 김벨미술관의 외부공간

4. 일몰시의 분당 요한성당 외관모습

건축물들을 촬영하는 일은 더욱 좋은 사진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 작품보다 사진작품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게 됨으로 사진가들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카메라가 좋다고 좋은 사진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카메라는 그저 기능적인 역할을 만들어 주는 기계일 뿐이다. 기본적인 장비와 기본적인 노하우를 알고 이에 따른 빛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실제보다는 더욱 좋은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일은 누구나 희망하는 일이지만 자연의 변화는 더욱 좋은 사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되는 것이다.

건축물 촬영에서 이러한 자연광의 이용방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일반적인 광고 스튜디오에서 이용하는 인위적인 인공광은 태양을 대신한 광선임으로 또한 인물사진이나 광고사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지만 건축의 외부 모습과는 달리 인테리어 실내에서 이용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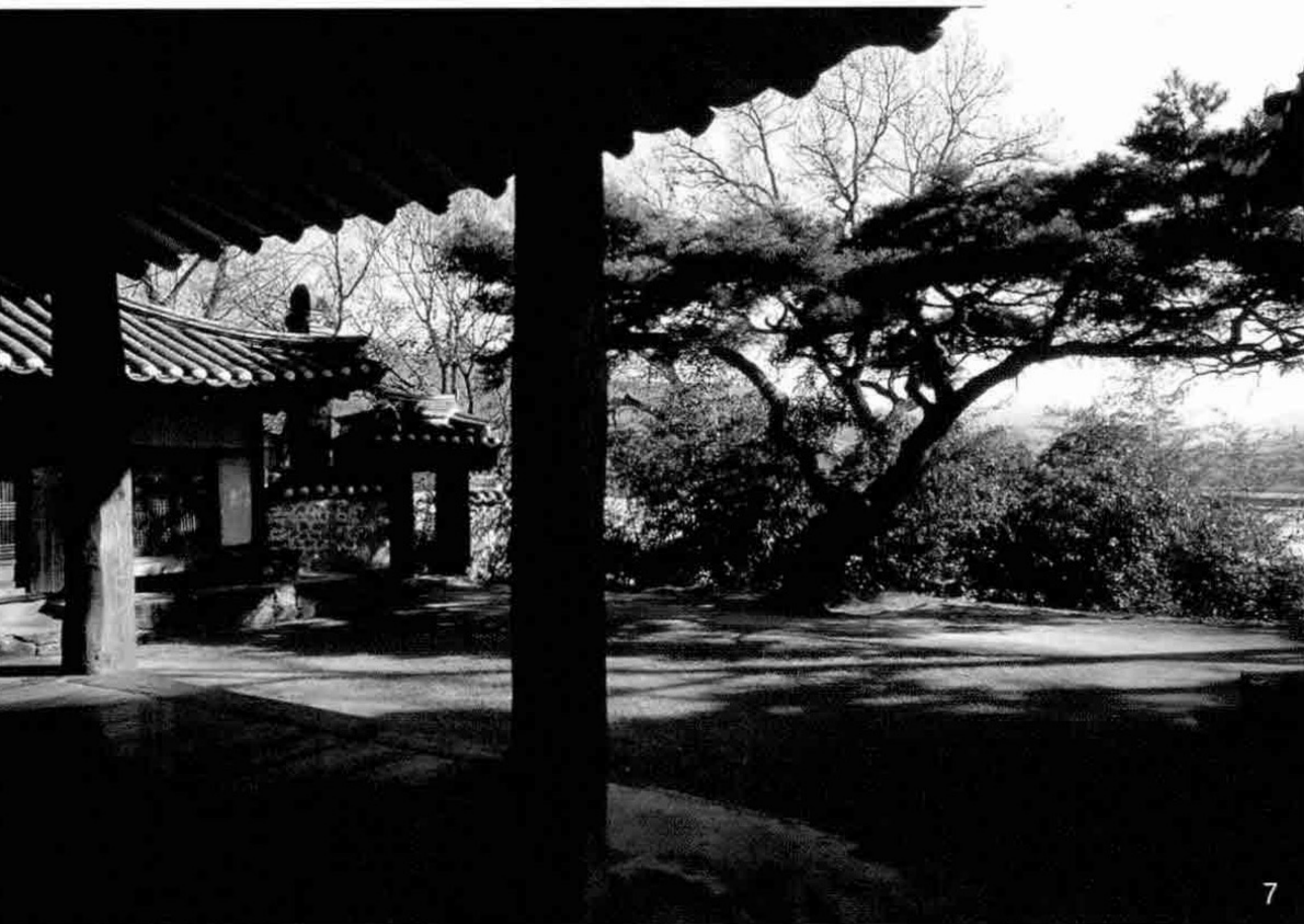




5



6



7



8

5. 창경궁의 처마 디테일 6. 전통건축의 내부공간 7. 옥연정의 외부공간 8. 삼성전자의 실내 디스플레이

인공광이란 실내조명에 따른 빛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건축물들의 외부 모습들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자연광으로 촬영이 가능하지만 실내 공간에 설치된 인공광은 모두가 같은 조건이 아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실내조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한 일이다.

오피스건축에서는 주로 이용하는 형광등과 상업건축에서 이용되는 백열등과 같은 인공조명들을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건물내부에 디자인된 선크이나 톱라이트와 같은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비추어 들어오는 자연광을 이용하여 촬영하면 좋은 사진이 만들어 주지만 자연광이 비추어지지 않는 인테리어 촬영에서는 인공조명 하에서 촬영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에는 형광등이나 백열등과 같은 인공조명하에서의 촬영은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사진들을 보면 형광등하에서는 푸른 녹색에 가까운 색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색상을 보정해주는 형광색보정 필터인 FL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

또한 백열등하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붉은 색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붉은 색감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려면 80시리즈 필터를 렌즈에 부착하여 촬영하여 색 보정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더 좋은 인테리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시간의 선택이 중요하므로 태양광이 밝은 대낮보다는 저녁 무렵이나 해가 진 저녁 늦게 촬영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촬영을 저녁 무렵의 시간으로 선택하여 촬영하는 것은 빛의 흐름인 내부와 외부광선의 밸런스를 만들어 줌으로 어느 정도 쉽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공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 자연광을 응용한 촬영이 더 좋은 인테리어 사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주거 공간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전망은 자연과 공간의 조화를 보여주며 빛의 흐름을 이해하면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진다. ▣